

David deSilva 박사 , 외경, 강의 5, 자세히 살펴보기: 토비트, 수산나, 바룩, 예레미야서, 벨과 용

© 2024 데이비드 드실바 (David deSilva) 및 테드 힐데브란트 (Ted Hildebrandt)

외경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avid DeSilva 박사입니다. 5부 자세히 살펴보기: 토비트, 수산나, 바룩, 예레미야서, 벨과 용입니다.

토비트서에서 우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삶에 더 초점을 맞춘 외경의 텍스트를 보기 시작합니다.

토비트는 유딧과 마찬가지로 교화적인 이야기이자 역사소설의 작품이며 아마도 아람어나 히브리어로, 아마도 팔레스타인에서, 아마도 동부 디아스포라에서 쓰여졌을 것입니다. 사해 두루마리에서 토비트 사본 몇 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책이 기원전 100년 이전에 이스라엘에서 읽혀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원전 100년쯤이 그 구성의 가장 늦은 날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이 책이 175년 사건 이전과 우리가 마카베오 1서와 2서를 이야기할 때 다시 살펴본 격동의 시대 이후에 작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에는 그 내용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Judith와 마찬가지로 Tobit도 또 하나의 놀라운 이야기일 뿐이며, 그 목적의 일부는 단지 훌륭한 실로 즐거움을 주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토비트 이야기는 이스라엘 땅, 사실은 북왕국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북왕국 출신의 경건한 토라 준수 이스라엘인으로서 왕국의 경향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규정한 대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성전에 갔으며 충실하게 자선 행위에 참여한 토비트를 간략하게 만납니다. 기타 자선 활동.

그러나 그의 신실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앓수르의 침입으로 북왕국의 수많은 성원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북왕국의 운명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니네베에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곳 니스웨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충실히 지켜 이방인의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자기 백성 중 궁핍한 자들을 돌보며 처형된 유대인들의 시체를 짚어지니라.

처형된 유대인의 시체를 짚어진 이 마지막 경건한 행동이 그를 그곳에서 곤경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북왕국 약탈 이야기의 대악당인 아시리아 왕 산헤립에 의해 처형되었습니다. 그래서 산헤립은 토빗의 재산을 압수하고 그와 그의 가족을 유배시킵니다.

산헤립이 암살된 후, 토빗은 니스웨로 돌아가 자신의 재산과 이전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죽은 자들을 향한 평소의 경건한 행위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가 안뜰에서 자고 있을 때 새똥이 그의 눈에 떨어져서 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 후 그는 수입을 아내 안나에게 의존하게 되고, 아내 안나에 대한 치욕이 커지면서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결국 하나님께 자신을 죽게 하시고 수치심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이 시점에서 저자는 또 다른 장면, 즉 라구엘과 에드나의 딸 사라가 아스모데우스라는 악마가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한 채 일곱 명의 남편을 둔 엑바타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토비트의 친척들에게로 전환합니다. 그녀를 질투하는 사람. 그래서 사라가 신부의 밤에 결혼식 방에 들어갈 때마다 아스모데우스는 남편을 죽입니다 .

일곱 번째 남편이 죽은 후, 그 여자는 자기 여종과 다툼을 벌이고, 그 여종은 그 남편을 죽인 사람이 바로 그 여자라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사라는 자신의 종 중 한 사람에게 모욕을 당하면서 더 이상의 조롱을 당하지 않도록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점에서 저자는 개입하여 토빗과 사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며, 두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 천사 라파엘이 하나님에 의해 파견되었다는 스포일러를 소개합니다.

우리는 니느웨의 토비트로 돌아갑니다. 그는 죽음을 위해 기도한 후 하느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자신의 일을 바로잡습니다. 그는 그의 어린 아들 토비아에게 가족에게 속한 은 10 달란트를 메대에 있는 가바엘 이라는 사람에게 맡겼던 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

그는 토비아스에게 인생에 대한 몇 가지 윤리적 지침을 제공하고 돈을 되찾기 위해 떠날 때 이 위험한 여행을 위한 동반자를 찾아 가족을 가난에서 구하고 토빗이 살아남을 것으로 기대하는 어머니를 계속 돌보라고 말합니다. 그를. 토비아스는 장터에 나갔다가 아사랴라는 사람과 함께 돌아옵니다. 사실 저자는 그 사람이 사람으로 변장한 천사 라파엘이라고 말하고 토빗은 아사랴를 동료로 승인합니다. 그래서 토비아스와 아사랴는 출발하여 여행 첫날 밤에 티그리스 강가에 진을 쳤습니다. 토비아스가 하루의 여행을 마치고 발을 씻고 있을 때, 큰 물고기가 강에서 튀어나와 그를 물려고 합니다.

Azariah는 그에게 물고기를 붙잡고 해안으로 끌고 가라고 지시하고, 그는 Tobias에게 물고기의 간과 심장, 쓸개를 가져오라고 지시합니다. 왜냐하면 Azariah는 그에게 물고기의 간과 심장이 악마를 쫓아내는 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물고기의 쓸개는 실명을 치료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흠, 결국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도중에 Azariah는 Tobias에게 여행 중에 우회하여 Tobias의 친척인 Raguel의 집으로 가서 Sarah와 결혼하도록 설득합니다.

Tobias는 자신의 이야기를 알고 이 줄에서 8위가 되는 것을 꺼려하지만 Azariah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것을 손에 쥐고 계시므로 Azariah의 지시 덕분에 부부는 결혼하여 결혼식 밤을 살아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기도를 하고 물고기의 간과 심장을 불태우면 악마는 이집트의 먼 곳까지 도망칩니다. 그곳에서 하룻밤 동안 천사 라파엘인 아사랴가 악마를 묶어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성공적인 결혼의 밤에 이어 14일간의 혼인잔치에서 아사랴는 메대까지 가서 은 십 달란트를 되찾는

사명을 완수하고 마침내 천사와 부부와 은 십 달란트를 무사히 이룬다. 니스웨로 돌아가서 토빗과 안나는 아들이 살아서 돌아와 자기 부족의 누군가와 결혼하게 되어 매우 기뻐합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토비아스는 물고기의 담낭에서 나온 쓸개를 아버지의 눈에 바르고 아버지의 눈을 멀게 했던 하얀 막이 벗겨져 다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다음 천사는 토빗과 토비아에게 자신을 은밀히 드러냅니다. 사실은 하느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인도하는 천사 중 하나인 라파엘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라고 지시합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토빗은 흠어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미래 구원에 대해 예언적으로 말하고 토빗에게 마지막 윤리적 지시를 내린 후 죽습니다. 토비트의 이야기는 많은 면에서 가치가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것 중 하나는 제2성전의 유대인 윤리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을 갖는 것입니다. 토빗은 아들 토비아스에게 두 차례에 걸쳐 윤리적 지시를 내립니다. 신명기에서는 궁핍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자선이 명시적으로 권장되고 실제로 명령됩니다.

너는 네 동포 곧 네 가운데 궁핍한 자와 네 땅에 너와 함께 거하는 가난한 자들에게 네 손을 넉넉히 펼지니라.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토비트서가 권장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윤리적 실천일 것입니다. 저자는 아직 이스라엘에 있는 동안 토빗이 두 번째 십일조를 부지런히 따로 떼어 고아와 과부, 그리고 이스라엘에 합류하여 그들의 가족과 지원 네트워크를 떠난 이방인들에게 분배했다고 말합니다.

유배 기간 동안 토빗은 자신의 친척들과 유배된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계속 지원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식탁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살해되거나 처형된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출된 시체를 묻고 단순히 니네베 성벽 밖에 내던졌습니다. 토비트가 아들에게 지시하는 첫 번째 연설에서는 자선을 장려하는 4~5개의 전체 구절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7절 이하를 함께 읽겠습니다. 의를 실천하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이 가진 것을 바탕으로 기부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준 것에 대해 당신의 눈이 불평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가난한 자에게서 네 얼굴을 돌리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도 네게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애야, 네가 가진 것에 따라 도움을 베풀어라. 가진 것이 많으면 기부를 하십시오. 가진 것이 적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비례하여 기부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당신은 필요할 때를 위해 귀중한 보물을 쌓아 두게 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사람을 죽음에서 구출하고 어둠 속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이를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기부하는 것은 가장 높으신 분 보시기에 좋은 선물입니다

물론 이러한 지시를 내릴 때 토빗은 신명기의 명령을 반영합니다. 또한 잠언 19장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꾸어 주리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온전히 갚아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비트는 자선의 미덕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실제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여 현재, 현재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투자라는 의미를 확대합니다.

천사 라파엘은 토빗과 토비아에게 한 연설에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 쌓아 두는 것이 사실은 미래에 대비해 자신을 위해 보물을 쌓아 두는 것이라는 생각을 더욱 촉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긍정적으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자선을 베푸는 것. 그러므로 천사는 금을 쌓아 두는 것보다 자선을 베푸는 것이 낫다고 말할 것입니다. 자선은 죽음에서 구원하고 모든 죄를 없애기 때문입니다.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지만,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들 자신의 최대의 적입니다.

실제로, 처음에 그를 하나님의 법정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한 토빗 자신의 친절한 행동임이 밝혀졌습니다. 라파엘은 토빗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를 아시고 라파엘을 보내 도움을 주기로 결정하신 것은 토빗의 자선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그 결과 토빗은 시험을 받고 눈이 멀게 되었으며, 토비아에게 사라라는 적합한 신부를 제공함으로써 그의 온 가족과 그의 가계에 치유를 가져오기로 한 하나님의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것은 개신교 종교 개혁 시대에 외경을 곤경에 빠뜨리는 또 다른 구절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선 행위로 자선을 베풀면 미래를 위한 공덕을 스스로 쌓을 수 있다는 생각을 조장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미래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토비트를 변호하면서, 우리가 나중 강의에서 보게 되겠지만, 심지어 예수님도 현재 궁핍한 사람들에게 소유물을 주는 것이 자신을 위해 보물을 쌓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이 생각을 받아들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이웃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토비트서가 장려하는 또 다른 가치 중 하나는 종족 내, 민족 집단 내에서, 심지어는 부족 내에서, 심지어는 씨족 내에서 더 가까운 결혼을 하는 내부혼의 가치입니다.

책의 4장에서 토빗이 아들 토비아에게 주는 지시에서 자선의 미덕에 대해 이야기한 후 토비트는 내부혼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 여기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토빗의 저자인 토빗이 유대 민족 밖에서 결혼하는 것을 일종의 음행으로 말하는 것인데, 이는 매우 놀랍습니다. 결혼이지만 한편으로는 일종의 성적 변태이기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혈통을 순결하게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토비트서에서 우리는 또한 황금률에 대한 초기 진술을 발견하는데, 이는 은률이라고도 불리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단지 부정적으로 언급되었기 때문입니다. 토빗은 아들에게 당신이 싫어하는 일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야기 전반에 걸쳐 우리는 신명기의 역사에 대한 처음부터 끝까지의 이해에 대한 확증도 발견합니다.

이 책의 등장 인물과 줄거리는 언약에 순종하면 현재 유대인 개인과 그의 가족은 물론 국가 전체에게 축복을 가져오는 반면, 언약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가져온다는 진리를 확증합니다. . 저자는 토빗 자신은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북쪽 왕국 전체에 만연한 언약 위반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앗수르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토빗에서는 천사와 악마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증거도 발견합니다.

토빗의 세계는 천사들이 가끔 겸손한 모습으로 등장하지만 이제는 이야기 속 모든 사람과 함께 플레이어가 되는 구약의 세계와는 크게 다릅니다. 천사가 토비아스와 함께 걸으며 가족을 돕습니다. 악마 아스모데우스가 같은 가족의 다른 구성원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섬기지 않는 중간 영적 존재들이 인간의 삶에서 활동할 것으로 기대하는 이야기 세계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천사학의 발전, 특히 다양한 계층의 천사, 일반 천사, 그리고 라파엘이 포함된 하나님 앞에서 있는 일곱 천사에 대한 창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이 인간과 신 사이의 지속적인 중개자라는 느낌이 듭니다 .

기도를 하나님의 눈에 띄게 하는 것은 천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청원을 이행하기 위해 파견되는 천사들입니다. 또한 토비트서에서 주목할 만한 기도의 사례는 토비아가 결혼식 밤에 드린 기도입니다.

악마가 당신을 죽일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지금은 기도하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많은 교회의 기독교 전례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혼식에서 구약성경을 낭독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이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당신을 찬송하리이다. 당신의 이름은 대대에 복이 있다. 하늘과 당신의 모든 창조물이 당신을 영원히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아담을 창조하셨고, 그를 돕고 지원하기 위해 그의 아내인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둘로부터 인류가 탄생했습니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를 자신과 같은 도우미로 만들자. 나는 지금 정육 때문에 이 여동생을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성실함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내가 자비를 받아 함께 늙어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제 이 기도의 형식은 수세기에 걸쳐 유대교와 기독교 관습 모두에서 두드러지게 지속되는 기도의 패러다임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첫 번째 줄은 실제로 성서 중간기의 시편이나 찬송가, 심지어 시편 자체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전례적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 시작 이후에 우리는 기도를 위한 틀을 짜는 도구로서 하나님의 목적에 주의가 집중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성한 목적은 명명되며,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암묵적으로 위태로워지는 목적입니다. 즉, 남자와 여자, 특히 이 여자, 토비아와 사라보다 더 위험한 이 남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토비아스는 결혼에 대한 그들의 목적이 실제로 동일한 목적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한다고 단언합니다.

그 후에야 토비아스는 이 밤을 살아남아 창조와 서로 결혼 제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살아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모델은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 전례에서 계속해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동방 정교회, 성공회 교회에서 발전된 기도 후 기도, 모금 후 모금은 정확히 이러한 패턴을 취합니다.

다음에 나오는 청원의 기초와 틀로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행위에 관한 일부 선언입니다. 청원자는 하나님의 요구를 먼저 고려하고,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먼저 고려하며, 그 목적에

부합하는 것만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토비트의 종말론에 주목하고 싶다.

이 책 13장과 14장에서는 나이 많은 토빗이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실 일에 대해 예언하는 목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13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방인 앞에서 그를 증거하라 그가 너희를 그들 중에 흠으셨음이니라. 그분께서는 여러분의 불의한 행위를 벌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어 여러분이 흠어진 모든 나라에서 여러분을 모으실 것입니다.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에게로 향하여 그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면, 그도 너희에게로 돌이켜 다시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 시기의 종말론적 진술의 공통된 맥락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디아스포라를 역전시키실 것이라는 희망입니다. 그분은 어떤 이유에서든 흠어졌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원래 그들에게 주신 땅, 그들의 조상들에게 영원히 그들의 땅으로 약속하신 땅으로 모으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러분이 회개하고 다시 언약의 행위를 행할 때 이 영광스러운 미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신명기의 틀 안에서도 주목합니다. 이제 토빗의 종말론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저자가 이 영광스러운 미래에 이방인들을 위한 희망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열방이 하나님 보시기에 침 뱉음을 당하는 제2 에스드라에서 우리가 목격한 것과는 아주 다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물론 예언서, 특히 이사야서의 일부 구절에서 나오는 희망입니다. 그 희망은 미래에 열방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빛으로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토비트 13장에서 우리는 밝은 빛이 땅의 가장 먼 곳까지 비칠 것이라고 읽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먼 곳에서 네게로 올 것이며 땅 끝의 주민들이 네 거룩한 이름으로 나아오리라.

그들은 하늘의 왕을 위한 예물을 손에 들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장에서는 온 땅의 모든 나라들이 돌이켜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그들을 속이고 오류에 빠지게 했던 우상들을 버리고 떠날 것입니다.

그들은 의로움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신약 중간기에 우리는 바울과 같은 다른 유대인들도 이러한 예언을 성취하려는 사명을 갖도록 이끄는 예언적 희망에 대한 또 다른 명확한 진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의 다른 나라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희망이 성취된 것입니다.

Daniel에 대한 추가 사항을 살펴보면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Daniel의 더 뚱뚱한 버전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리스어로 번역되었을 때 두 가지 추가 이야기가 포함된 확장판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사로잡을 수잔나와 벨과 용의 이야기(곧 다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길고 아름다운 전례 작품을 추가하여 확장했습니다. 아사랴의 기도로 알려진 참회의 기도와 세 젊은이의 노래로 알려진 감사와 구원의 시입니다. 지금은 다니엘의 그리스어 버전에서 이러한 추가 장면 중 첫 번째 장면을 간단히 고려해 보겠습니다.

수잔나의 이야기. 수잔나는 이야기가 현자 다니엘의 궤도로 옮겨지면서 다니엘과 동일시되는 이름 없는 현명한 사람에 대한 독립적인 이야기로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순환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중 여섯 개는 다니엘서의 정경을 읽음으로써 우리에게 친숙합니다.

이 책은 토빗서와 마찬가지로 동부 디아스포라의 유대인 공동체 내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두 증인의 증언만으로도 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는 신명기적 규칙의 몇 가지 문제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 내에서 권위와 신뢰가 남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야기가 간략하게 전해지며, 힐기야의 집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가 모였습니다. 지역사회의 판사들은 그곳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의 생활을 규제하는 일을 했습니다.

덧붙여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호스트 사회 내에서 많은 자치권을 행사했던 적어도 일부 영역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힐기야에게는 수산나라는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힐기야의 집에 모이게 된 두 재판관이 수산나를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자의 말처럼 그들은 천국에 대한 두려움에서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자마자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악한 성향의 희생양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 업무가 끝나면 사람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두 재판관은 힐기야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집 밖에서 다시 만난다. 그리고 둘 다 여기서 자신들이 다시 나타난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서로에게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고백하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수산나를 성적으로 즐기고자 하는 열망에 동조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그래서 그들은 힐기야의 집 정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산나가 매일 목욕을 해주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렇게 하고 그녀의 수행원들이 해산되자 그들은 그녀에게 달려들어 그들과 함께 누워자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녀를 위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판사라고 하더군요. 우리는 당신이 여기서 악행을 저지르려는 청년과 함께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탈출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굴복하지 않으면 당신은 나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헌신한 고결한 여인인 수산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들의 위협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거부합니다.

글쎄요, 장로들이 위협하는 것처럼 그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인들이 달려들어 수산나가 이름도 얼굴도 없는 청년과 간통을 저지르기 직전이었다고 비난한다.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두 판사는 수산나에 대해 증언합니다. 그리고 물론 처음 두 판사의 평판을 바탕으로 다른 판사들의 판결은 그녀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녀가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동안 우리는 이야기의 주인공을 만나다.

한 청년이 벌떡 일어나 이르되 나는 무죄한 피를 흘리는 일에 참여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화자는 이 사람이 청년 다니엘이라고 알려줍니다. 다니엘은 '내가 이 증인들을 조사하여 그들이 이 무죄한 여자에 대하여 한 거짓말을 알아내거나 폭로하게 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

그래서 그는 두 재판관을 갈라 놓고 한 재판관에게 이 부부가 간음하려 한다는 주장을 어느 나무 아래에서 보았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주목나무 아래서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말하기를 행악자여 이 거짓말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를 둘로 쪼개실 것이라 말하였느니라 실제로 말장난은 원래 영어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에게 질문합니다 . 이 두 사람이 어떤 나무 아래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았습니까? 그리고 그는 소나무 아래서 말한다. 그리고 다니엘은 자신의 거짓말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에 대해 재치 있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반대 심문을 통해 모든 회중 앞에서 수산나와 공모한 두 증인의 거짓말을 폭로하고 그녀는 구원을 받습니다.

다니엘은 위대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칭찬받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내가 방금 요약한 것보다 본문에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수산나는 일종의 순교자 인물입니다. 일시적인 안전을 가져다주는 불순종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은 누군가가 미덕에 대한 헌신 때문에 위험에 처해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예의바른 이야기의 패턴에 속합니다. 이는 또한 적어도 일부 유대인 공동체가 디아스포라 환경에서 누렸던 중요한 자치권과 토라를 민법 및 형법 코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반성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는 “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와 동침하다가 잡히면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일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 이야기는 마치 그것이 실제로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조항, 규정인 것처럼 작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이스라엘 사람에 대한 비난에 관한 신명기의 법을 반영합니다

신명기 19장에는 재판관들이 철저히 심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일 그 증인이 거짓 증인이 되어 다른 사람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였으면 그 거짓 증인이 다른 사람에게 행하려고 한 것과 같이 너도 그 거짓 증인에게 행할지니라 그리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리고 사실 다니엘은 거짓 증인을 찾아내기 위해 철저히 조사하는 방법을 직접 나서서 보여 주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출애굽기 23장 7 절을 반영합니다. 거짓 모함을 멀리하고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죄 있는 자를 의롭다고 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적절한 순간에 뛰어 올라 세상을 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그리스어 버전에서 발견되는 다니엘에 추가된 몇 가지 다른 내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나는 포로 생활 중인 이스라엘의 곤경에 초점을 맞춘 또 다른 책인 바룩서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 바룩은 종종 독자들에게 의해 매우 독창적이지 않은 구약성서 본문의 모방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천재성이 바로 바로 그 사실에 있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다섯 개의 짧은 장 안에는 다양한 전통 자료를 의미 있게 모아서 이방인의 땅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땅에서 외국의 지배를 받았다는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은 역사에 대한 신명기의 이해와 회복을 위한 방법, 즉 회개와 언약에 대한 충성과 준수로의 복귀를 따라 구성되었습니다 .

그것은 바룩이 고향 사람들을 위해 규정한 긴 전례, 전체 백성을 위한 고백 기도, 그리고 하느님의 도움을 구하는 요청으로 시작됩니다. 바룩의 중간 부분은 전혀 다른 맥락으로 움직인다. 갑자기 우리는 지혜의 원천인 토라(Torah)로 돌아가는 것에 관한 벤 시라(Ben Sira)의 집에 있었던 지혜의 시, 지혜의 텍스트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의 세 번째 부분에는 예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사야서의 매우 특별한 구절, 즉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약속과 그 땅에서 그 자녀들을 모으겠다는 약속을 매우 연상시킵니다. 그들은 흩어져서 애도하며 시온으로 향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한편으로는 성경에서 매우 파생된 것이지만, 유배와 외국 지배의 상황을 다루기 위해 유대인의 성경 유산 전체에서 나온 자료를 창의적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한 작품일 수도 있고, 복합적인 작품일 수도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의 히브리어 원본이 분명히 있는데, 이는 전례 부분, 즉 그 땅에 남아 있는 유대인들과 흩어진 유대인들 모두를 위해 규정된 고백과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후반부는 전반부의 일종의 확장으로서 그리스어로 작곡되었을 수도 있다. 4:5부터 5:8까지의 원어는 헬라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개입하는 지혜의 시에는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작업 날짜도 거의 미스터리입니다. 바룩서의 주목할만한 강조점 중 하나는 토라의 율법에 대한 교리입니다. 실제로 이 점에 있어서는 벤 시라(Ben Sira)의 지혜에서 우리가 찾은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토라는 짐이 아니다. 토라는 짊어져야 할 무거운 멍에가 아닙니다. 토라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그 지혜의 시에서 하나님이 지식에 이르는 모든 길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그의 종 야곱과 그가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것을 읽습니다. 그 후 그녀는 지상에 나타나 인류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계명의 책이요 영원히 지속되는 율법이니라

그것을 붙잡는 사람은 모두 살고, 그것을 버리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오 이스라엘아, 우리는 행복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따라서 벤 시라(Ben Sira)에서와 같이 우리는 지혜의 형상이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계명 책과 동일시되는 이러한 발전의 증거를 갖게 됩니다.

토라 두루마리는 이제 지혜의 화신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운이 좋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바룩서 첫 부분에 나오는 일종의 목회적 통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형벌을 받는 가운데 우리가 처한 상황이 올바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지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회복과 역전의 출발점은 이 기도문의 저자가 인정한 것처럼 주 우리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과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우리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우리 조상들이 공개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은 우리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음이니라

그리고 같은 문서에 있는 두 번째 회개의 기도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의로우시나 오늘날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공공연히 부끄러움을 당하시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참으로 아름다운 참회 기도에서 발견하는 것은 신명기에서 선포된 저주에 빠진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느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죄를 인정하는 출발점입니다.
예레미야서는 바룩과 자주 연관되는 본문이다.

사실, 킹 제임스 버전과 외경을 경멸하는 사람들을 위한 또 다른 재미있는 소식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1611년에 외경과 함께 출판되었으며 적어도 1631년까지 중단 없이 계속해서 인쇄되었습니다. 버전만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를 기억하세요. 예레미야서는 종종 바룩서 6장으로 제시되지만, 아마도 원래는 독립적으로 작성된 편지였을 것입니다.

디아스포라에서 나온 것입니다. 원래 언어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목적은 간단합니다. 저자는 마치 예레미야서처럼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포로 생활을 준비시키는 형태로, 이방 종교를 둘러싼 매력과 경외심을 확산시키고 싶어합니다.

그는 당신 주변의 대다수의 사람들, 대다수의 이웃이 그러한 종교에 참여하는 것을 보는 힘을 확산시키고 싶어합니다. 이와 같은 글을 쓴 작가들은 사회적 압력을 진보된 방식으로 이해했습니다. 대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아마도 그것이 맞을 것이다.

어쩌면 소수의 삶의 방식, 소수의 믿음, 소수의 실천에 대한 나의 헌신이 틀렸을 수도 있고 소소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나는 변해야 할 것입니다. 글썬요, 이 유대인 작가들은 유대인들이 갑자기 소수 문화에 속하게 되는 상황에 대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서의 첫머리에서 이런 구절을 읽습니다.
바빌론에서는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어깨 위에 얹혀진 은, 금, 나무로 만든 신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신들은 사람들에게 경외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신들을 두려워하는 것이니라 큰 무리가 그 앞 뒤로 다니며 그들에게 경배하는 것을 볼 때에는 더욱 그러하니라 그러나 주님, 우리는 당신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저자는 유대 공동체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의 명백한 종교적 헌신에서 주목을 거두고 문서가 진행됨에 따라 그것을 우상 자체에 두었습니다.

즉, 저자는 조각상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숭배 대상 자체로서의 우상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이방 종교의 부조리로의 일종의 환원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생명 없는 금속, 돌, 나무 조각으로 말할 것인데, 이 바보들, 이 이방인들이 당신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방 종교의 모든 화려함과 상황은 더 쉽게 무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장광설과 우상 숭배에 반대하는 호언장담을 읽으면서 이러한 맥락에서 많은 단언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상은 생명이 없는 금속, 돌, 나무 조각일 뿐입니다. 우상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행렬에 짊어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아이돌은 넘어지면 어쩔 수 없다. 그것은 스스로 일어설 수 없습니다. 성전에 불이 붙으면 제사장들은 도망하지만 우상은 지붕의 들보처럼 타 버립니다.

우상은 도둑이 외관의 금박을 벗겨내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무력한 일에 도움을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말은, 왜 누군가가 이들을 신으로 생각하거나 그렇게 불러야 하는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제: 분명히 그들은 신이 아니므로 그들을 존경하지 마십시오.

따라서 예레미야서는 많은 본문 중 하나일 뿐이며 실제로 구약의 예언서에는 이에 대한 몇 가지 좋은 선례가 있습니다. 이사야, 44살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떠날 수도 있어. 예레미야서 10장, 이와 같은 본문은 이미 동일한 수사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예레미야서는 기본적으로 예언서에 있는 생각의 씨앗을 확장하는 간략한 강론입니다.

그것은 외경에 있는 많은 텍스트 중 하나이며, 외경 밖에서도 이러한 맥락으로 이동하여 유대인을 다수 문화의 종교인 이방인의 종교

관습으로부터 격리시키려는 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편지는 간단합니다. 담론을 말하고 싶은데 장황한 말이 정말 맞고 호언장담이 정말 옳습니다. 그러나 내러티브와 이야기 역시 정확히 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에 추가된 또 다른 이야기, 벨과 용의 이야기, 또는 Common English Bible과 같은 일부 현대 번역판에 있는 벨과 뱀의 이야기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어로 같은 단어인 드라콘(dragon)이 풀 속의 뱀이나 더 공상적인 용을 가리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마치 수산나의 책과도 같고, 또 다른 종류의 탐정소설인 수산나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진실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함께 어울리기 위해 구성된 한 쌍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두 번째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를 언급하며 전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는 이 두 이야기의 순서를 토대로 구축됩니다. 이방인의 종교적 관습을 조롱하는 두 가지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인 벨 이야기는 다니엘을 벨 신전으로 이끌고 가서 “벨은 큰 신이 아니냐?” 라고 말하는 페르시아 왕을 묘사합니다. 이 웅장한 사원을 보세요. 거기를 보고 벨이 위대한 신이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왕은 벨이 살아 있는 신이라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사실은 제사장들이 매일 벨 앞에 제물을 놓았으나 다음 날 아침에는 항상 음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벨은 우리가 매일 그에게 드리는 제물을 흡족히 먹는 참으로 살아 있는 신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실제로 이야기 속에서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속지 마시고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여기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의 허락을 받아 성전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재를 바닥에 뿌렸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성전 문을 닫고 왕의 인으로 인봉하고

아침에 다시 오자고 말했습니다. 아침에 왕과 다니엘 그리고 아마도 그들의 수행원 전체가 돌아와서 문을 열자 음식이 없어졌습니다.

그러자 왕은 무릎을 꿇고 “ 오 , 위대한 벨이여, 당신은 참으로 경배받을 신이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바닥을 보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닥과 제단 주변에는 발자국이 보입니다.

남자의 발자국, 여자의 조금 작은 발자국, 아이들의 조그마한 발자국. 그리고 그들은 발자국을 따라 사원의 비밀 문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문을 통과하여 제사장의 방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왕은 자신이 수년 동안 속았다는 사실과 제사장들이 벨이 음식을 먹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실제로는 매일 밤 스스로 나와서 그것을 먹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했고, 벨 신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분명히 이방인의 종교를 조롱하고 있으며, 이방인의 순진함을 이용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제사장의 속임수에 의해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이 진짜 신이라고 믿도록 속이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도 매우 유사합니다. 미래의 어느 시점에 왕은 다니엘을 다른 신성한 신당으로 데려갑니다. 이번에는 큰 뱀이나 용, 또는 당신이 상상하는 어떤 종류의 동물이라도 거기에서 갖고 싶어하는 것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왕은 진실로 다니엘아, 그가 움직이고 뱀이 하는 일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살아 있는 신이라는 것을 너는 부인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물론 다니엘도 그것이 살아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신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나에게 허락을 주시면 당신의 그 신을 죽이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본적으로 뚱뚱한 머리카락과 역청으로 만든 작은 헤어볼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이 뱀이나 용에게 먹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용의 배가 부풀어 오르며 터진다. 그래서 다니엘은 또 다른 거짓 신을 폭로했습니다. 자, 참고 사항: 동물 숭배는 고대 세계에서는 드물었지만 이집트에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사람들은 벨과 용의 이야기가 고대 페르시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곳에서 시작되었다고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에서는 악어, 따오기, 매 등이 신의 표현으로 간주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방인 숭배의 관행을 터무니없는 것으로 축소함으로써 본질적으로 그 주장을 주장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야기의 끝은 사람들이 다니엘이 신들을 파멸시키고 왕에게서 유대인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다니엘이 죽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사자 굴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기적적으로 구출되었고 왕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이방인의 종교적 관습과 주장에 매력을 느끼지 않도록 다른 유대인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허수아비 논쟁을 만들어낸 것은 분명합니다.

이방인들은 그들이 성전에 있는 신상이나 신성한 동물 그 자체에 경배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조각상이나 동물은 단지 그들이 교류하고자 하는 보이지 않는 신의 물리적 표현일 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플라톤은 신전에 있는 우상들은 생명이 없지만 그 뒤에 있는 살아 있는 신들은 숭배자들에 대해 좋은 성품과 호감을 느낀다는 점을 거리낌 없이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 유대인들이 이방 종교의 허위를 폭로하기 위해 그렇게 멀리까지 갈 필요가 없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라는 다른 본문을 살펴보면, 이방인들이 자신의 종교가 시작되었음을 어떻게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현실과 더 일치하기 시작할 수 있는 이방인 종교에 대한 좀 더 정교한 설명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